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2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 백년대계를 위해 제 2차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미래 우리사회를 짊어지고갈 2세를 길러내는 일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처님이 설한 교육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참 교육

세가지 학(學)이 있으니 셋이란 무엇인가. 소위 계(戒)학 심(心)학 혜(慧)학이 그것이다.
〈문수불경계경〉

온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원스레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은 점점 모여졌기 때문이니, 무시윤회의 바다에서 보리심을 일으켜 금강도량에 앉아 불과(佛果)를 성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제법집요경〉

대왕이여, 알고서 악행을 짓는 사람과 몰라서 악행을 짓는 사람 가운데 몰라서 악행을 짓는 사람의 화가 더 큽니다. 불에 달군 쇠덩어리를 알고 잡았던 사람과 모르고 잡았던 사람은 어느 쪽이 심하게 데이겠습니까?
〈미린다왕문경〉

저 어리석은 중생들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종내 깨달을 날이 없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은 부지런히 정진해 배움을 닦아 자기의 학문을 성취시키는 한편, 중생들로 하여금 이 가르침 중에서 도리에 맞게 학문을 닦아 실지실견(實知實見)하여, 청정한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을 얻게 한다.
〈불모출생경〉

하잘것없는 도(道)를 배워, 그릇된 견해를 믿어서는 안된다. 방탕을 익혀 갈애를 증장시켜서는 안된다.
〈법구경〉

중생은 수습(修習)을 즐겨해 스승을 따라 배움을 닦아야 한다. 그리하여 훌륭한 스승의 본래의 가르침을 수지하여 삼매에 싫증냄이 있어서는 안된다. 근책계를 항상 닦아서 다섯 번뇌의 훈습을 떠나고, 여러 계를 잘 실천하여 깨달음을 힘껏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성불신변경〉

땅을 놓고 볼 때 얼부수 숲을 흐르는 강 밑에서 나는 사금은 얼마 안되지만 가시나 모래 조약돌 풀 나무 따위는 많다. 온갖 중생도 마찬가지다. 중생의 모임을 놓고 볼 때, 반이바라밀다를 닦는 사람은 얼마 안되지만 성문 연각의 법문을 닦는 사람은 많다.
〈불모출생경〉

병아리가 쪼고 어머닭이 쪼아 병아리가 눈매 껍질이 없어짐에, 병아리와 어미닭의 분별을 모두 잊어버리고 기연에 응하되 어긋남이 없이 갈 길에서 함께 노래하여 하나가 된다.
〈벽암록〉

관련기사 3면

기독교 위주 교육개혁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은 편파 행정

2차교육 개혁안 '종교특성 무시' 여론 비등

김영삼대통령의 국방부 국군교회 예배 참석을 둘러싸고 정부의 기독교 편향정책에 대한 타종교 국민들의 위화감이 거세게 일고있는 가운데 또다시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기독교 편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가 지난 9일 발표한 제2차 교육개혁안은 문하생제도와 원격교육제도, 특성화 전문대학 설립등 혁신적 개혁안이 제시돼 환영할만한 반면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은 개신교 목사 양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이라는 불교학계·교육계의 여론이 비등하다.

그것은 이번에 발표된 교육개혁관계법 시안 제31조(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의학 신학에 있어서 고루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에 전문대학원을 둘수 있다"고 명시, 기독교 목회자 양성이 그 취지임을 법조문안에서 명백히 드러냈다.

더구나 우리사회와 같은 다종교 상황에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이라는 설립 자체가 각 종교 교단 발로 행해지고있는 성직자 배출 제도 등 특성을 무시한채 기독교식 일변도의 제도를 도입했다는 지적이다.

불교의 경우만 하더라도 수행을 근본으로 전통적인 승가법계에의해 성직이랄 수 있는 스님이 양성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자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스님의 양성과정에서 석사 박사등 학위와 전혀 관계가 없어 성직자 양성 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성직자양성 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 개신교계의 일부 난립하고있는 무자격 목사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화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유례없는 다종교의 우리 사회에서 과연 정부가 전문대학원제도까지 설치해가며 목회자를 양성해야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성직자 양성과 교육등은 종교교단및 단체의 소관사항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와관련 동국대석림회 동국대동문회 불교인권위 현대불교연구소등이 10일 성명서를 낸데 이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서윤길학장은 지난 14일 교개위에 건의서를 냈다. 그리고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은 세미나 공청회등을 통해 집약된 교계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원우 기자〉

관련기사 3면

독도 망언 규탄 일본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는 불교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불교인권위가 민주주의민족통일연합과 연대해 일본대사관을 방문, 강력항의 했다. 한편, 경불련은 12일 규탄가두시위를 했고, 천리안 불교동호회는 일본 전자메일을 이용한 항의 편지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종교편향 시정 · 재발방지 촉구

월주스님 'YS 국군교회 예배' 관련 담화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지난 14일 총무원 불교회관 1층에서 1·21 김영삼대통령의 군교회 예배사태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종교편향정책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한편 대통령예배사태에 대한 불자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월주스님은 '정부당국자와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근래에 불교에 대한 차별대우와 정치적 이용으로 불자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현정부 출범이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통령의 군교회예배에 대해 불교계가 보이고 있는 반응은 현정부의 종교편향정책으로 초래할 국론의 분열과 종교간의 공존, 평화질서 파괴를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또 "대통령은 특정종교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인 만큼 개인의 종교행위로 인해 타종교 활동을 제한하거나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은 공 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원칙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의전규범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월주스님은 불교계의 김대통령 공개사과 요구와 관련해 "종교편향정책에 대한 진정한 시과와 반성은 의례적인 일과성 사과형식이 아닌 편향적 종교정책과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 재발되지 않게 하는것이다"며 정부의 성의있는 조처를 촉구했다.

월주스님은 또한 불자들을 향해 "그동안의 차별적 종교정책과 대통령 군교회예배로 인해 크게 상심했을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다시 한번 인내와 화쟁의 정신을 하자"고 말해 사실상 승·재가단체가 요구하는 김대통령 군교회예배사태에 대한 공개사과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번 총무원장 담화문은 김대통령 군교회예배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사과 촉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계종의 첫 공식입장으로 향후 교계 반응이 주목된다.

YS 교계인사 13명 초청

김영삼대통령은 21일 월주 해초 운덕 락에 홍파 녹원 설정 종하 태응 송산스님과 서돈각 권익현 김명윤씨 등 교계 지도자 13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다.

김대통령 해외순방에 앞서 마련된 교계인사 초청은 지난달 21일 군교회예배사태로 불편했던 불교계와 화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조계종 신도회 4월창립 '가시화'

이달내 현장 · 규약초안 마련 법제분과위 제출

조계종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 한상범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4월안에 중앙신도회 창립법회를 봉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구·직능단위 신도조직의 미비로 당초 예정했던 2월내 창립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4월 창립을 위해 창립대회 집행기획단 발족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회장영입에 대해서도 "중앙신도회는 과거처럼 특정인사의 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특정정파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갑자기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자립할 수 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차선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또 전국신도회 재건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신도회는 조계종과 관계없는 임의단체이므로 평가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원회 현장·규약기초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조영황변호사를 선임했다. 기초특위는 또 이달말까지 현장 및 규약의 초안을 마련, 법제분과위에 제출키로 했다. 중앙신도회 현장·규약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된다.

울산 경영인협 출범

佛放 중계소 추진키로

울산경영인 불교협의회는 지난 8일 울산 코리아나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에 박태엽씨(유진기업 대표)를 추대하는 한편 불교방송 중계소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신앙을 기초로 한 봉사와 포교활동에 주력하게 될 울산경영인불교협의회는 초종파 신도들의 모임으로 이 지역 실업인과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50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마음의 전화' 개통

한불청, 3월 1일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 부설 마음의 전화가 오는 3월1일 개통식을 갖고 출범한다.

이웃의 고민을 풀어주고 아픔을 함께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마음의 전화(02-747-5787~8)는 매일 오전10시~오후6시까지 신앙·가정·청소년문제 등에 대해 상담하게 된다.

"독도망언 이번엔 뿌리뽑자" 15면
국내최대 목탑 진천 보탑사 14면
설날 특집—놀이 · 볼거리 11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우리는 신대륙, 사이버 스페이스로 간다
멀티미디어를 지나 사이버미디어로 —

한솔이 21세기 첨단정보통신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사이버스페이스—
무한정보가 살아 숨쉬는 곳,
진하 새로운 미래형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곳에
한솔 사이버미디어로 접속하십시오.
한솔은 21세기 정보통신영역인
사이버스페이스를 개척하며
정보통신선진국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21세기 사이버미디어 – 한솔텔레컴
Hansol